

광주 남구, ‘감염병 취약’ 어르신 찾아 뵙고 건강챙긴다

지난 1~2월 경로당 174곳 클린방역, 하반기도 실시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예방 교육·체험 교실’ 운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의 주요 거점 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인데다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사다.

남구는 13일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체험 교실’을 연중 실시하고, 상·하반기 클린방역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

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경로당 174곳에서 위해 해충에 의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경로당 내부에 바퀴벌레 트랩을 설치하고, 경로당 주변 정화조 및 하수구 등에 유충 구제약 살포와 연무 소독까지 끝마쳤다.

연초부터 관내 경로당에서 상반기 클린방역을 서두른 이유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내 감염병 신고 건수가 늘고 있고, 경로당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2023년 관내 월별 감염병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2월에는 9건이었던 것이 3월에만 16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도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상반기 클린방역에 이어 수시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오는 11월부터 하반기 클린방역에도 나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지난 2월말부터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체험 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있다.

계절별 유행하는 감염병 안내를 비롯해 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한 개인위생 수칙 교육, 손 씻기 뷰 박스를 활용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



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 건강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경로당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해남군,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 버스가 찾아갑니다

읍면 순회 건강 100세 행복 버스, 어르신 건강지킴이 “효자가 따로없네”



지난 19일 해남군 마산면 외호리 경로당이 20여명 어르신들로 가득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에도 이렇게 모인 것은 오늘이 건강버스가 마을을 찾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반 버스를 개조해 치과치료실과 진료실 등을 갖춘 건강버스는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위해서는 일부러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면단위 주민들에게는

자식 못지않은 효자버스로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이 보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건강 100세 행복 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버스는 일반진료를 비롯해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8명의 전문인력이 팀을 이루어 의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한다.

어르신들의 진료는 물론 물리치료, 혈압·혈당·치매검사, 계절별 보건교육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관내 123개소를 누비며, 3,753명을 대상으로 진료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결과 진료 만족률 97%, 보건 교육 만족률 99%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건강 100세 버스는 힘차게 달린다. 연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3월까지 30여개 마을을 찾은 예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일반의사와 간호사 등 2명을 추가 투입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 100세 행복 버스를 통해 의료 격차·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군민의 건강 지킴이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나주시 “원예치료로 우울증 극복해보세요”



로그래들은 쉽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구성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복지관 이용자는 “내 인생에 최고로 기쁜 날을 표현하는 꽃을 만들 때 얼마나 기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꽃을 보면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나주시 보건소가 내달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75세 이상 나주시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예 심리치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원예 심리치료란 고독감,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분 만들기, 식물 양육을 통해 마음 건강과 우울 극복을 지원하는 심리 프로그램이다.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정신건강 상담, 우울 선별검사, 집단 프로그램, 공예 활동,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프

그런데 “시민들께서도 주변 어르신들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돌보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정신건강행복마을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